

영화 '곤지암'으로 스타덤 박지현

연기를 시작하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신예, 드라마나 영화 출연 경험도 거의 없는 신인이 영화 주인공을 맡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드물다. 처음부터 신인 연기자를 영화 주인공으로 내세우려고 기획한 작품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렇다고 이런 기회가 자주 시도되지도 않는다. 이래저래 '비늘 구멍' 같은 기회가 연기자 박지현(24)에게 돌아갔다.



고교때 안경 낀 조용한 애
 대학교 휴학 후 연기 공부
 오디션만 200번쯤...
 곤지암을 만난 건 큰 행운
 이제 시작일 뿐... 또 오디션



박지현은 영화 '곤지암'으로 데뷔 2년 만에 주연 연기자가 됐고, 그 작품이 흥행에도 성공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기쁨을 만끽하기보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그는 "새 작품을 위해 다시 오디션을 봐야하는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작은 사진은 박지현이 '곤지암'에 출연한 모습. 김중현 기자 won@donga.com 하이브리드미디어코프 제공



“차기작은 코미디? 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웃음 본능 꺼내고 싶어요”

공포영화 흥행 기록을 새로 쓰는 '곤지암'(감독 정범석·제작 하이브리드미디어코프)은 '과감하게' 주인공 7명을 전부 신인 연기자로 캐스팅했다. 공포영화가 신예기용에 비교적 너그러운 지만, 이번처럼 출연진을 전부 새로운 얼굴로만 채우기는 이례적이다.

박지현의 말을 빌리자면 “비슷한 시기에 영화 오디션에 응시하고 있던, 거의 모든 신인 연기자가 '곤지암'에 도전했다. 물론 박지현도 마찬가지. 개인별, 팀별로 나눠 3차까지 진행된 까다로운 오디션을 통과한 그는 여주인공 지현역을 차지했다. 행운은 뒤따랐다. 처음 주연한 영화로 흥행을 맞보는 상황. 처음엔 “100만 관객만 모으면 좋겠다”고 내심 바랐지만 벌써 영화는 250만 기록을 향해가고 있다.

박지현은 '공포 성지'로 알려진, 그래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모두가 신신당부하는 곤지암 정신병원에 굳이 들어가 그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영화의 주인공 일곱 명 중 리더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가 무언가에 '빙의'되는 순간, 영화의 공포가 본격 시작된다.

영화에선 강한 인상일 수밖에 없지만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 타고난 흰 피부의 영향인지, 단아한 이미지가 그의 첫 인상을 지배한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면의 '독심'도 느껴진다.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 그는 연기자가 되길 바랐지만 대도시와 떨어진 곳에 살다보니 딱히 방법을 몰랐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언니, 남동생과 역할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연기 재능'을 스스로 발견, 부모를 설득해봤지만 '대학 들어간 뒤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만 돌아왔을 뿐이다.

“그 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고, 공부 가 당연하게 느껴졌다. 하다보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고등학교 때 '안경 낀 조용한 애'였다. 그러다 대학(한국외대 스페인어과)에 입학해서 살 빼고, 1학기 마치고마자 휴학을 해버렸다. 바로 연기학원에 입학하려고.”

연기학원을 오가면서 영화와 드라마 오디션에 수없이 나섰다. 물론 지금도 오디션 도전은 그의 '일과' 중 하나. 전부 셀 수 없지만 어렵지 않게 “200번쯤 오디션을 본 것 같다”고 했다.

비슷한 처지의 신인 연기자들과 비교해 그는 일이 수월하게 풀린 편이다. 다니던 연기학원

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형식의 자체 오디션에서 1등을 차지했고, 마침 그 자리에 와 있던 매니지먼트사 관계자의 눈에 들었다. 문근영, 신세경 등이 속한 나무엑터스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지난해 방송한 SBS '사임당', MBC '왕은 사랑한다'에 얼굴을 비쳤고 영화 '반드시 잡는다' 등으로 경험을 쌓았다.

“대학을 휴학하고 나서 왠지 창피한 마음에 연기자를 준비한다는 말은 친구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다보니 연기가 너무 재미있고, '다들 이렇게 재밌는 연기를 왜 하지 않지?'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 하하! 혹시 친구들 만나면 말하지 않고 연기를 배우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보고 말았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친한 이들에게 '연기를 해보라'고 권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박지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화제가 된 뒤 현재 KBS 2TV 월화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에 출연하는 배우 겸 모델이다. 박지현의 적극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진 그의 성향을 짐작할 만한 상황은 또 있다. '곤지암'은 출연진이 고프로 등 기능이 제각각인 여러 대 카메라를 들거나 부족한 채 촬영한 영상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연기 경험이 가득이나 적은 박지현으로서는 이런 '페이크다큐멘터리 촬영기법'이 낯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달랐다.

“평소 카메라와 친한 편이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도 즐긴다. 촬영용 카메라도 있고, 편집은 프리미어프로로 한다. 프로그램을 쓰려고 매달 정기결제도 하고 있다. 하하! 가끔 필름카메라도 쓴다. 여행 갈 때도 찍고 내 프로필 영상이나 촬영장에도 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다.”

아직 보여줄 게 더 많은 박지현은 '곤지암' 인기를 만끽할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도 “곤지암 촬영장이나 함께 한 동료들을 떠올리면 마치 군대에 다녀온 것 같은 전우애가 느껴진다”고 애뜻한 마음을 드러냈다. “다시 오디션을 봐야하는 입장으로 돌아간다. 관객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당장 하고 싶은 건 코미디! 내 웃음 본능을 표현하고 싶다.”

이해리 기자 g01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강한나, 왕대륙과 두 번째 열애설

배우 강한나(29)가 대만 배우 왕대륙(27)과 두 번째 열애설에 휩싸였다. 11일 대만의 한 주간지는 두 사람이 4일 한 수산시장에서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됐으며 열애설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편안한 차림으로 웃으며 마트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강한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이날 “들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면서 “당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장을 보고 있던 것이다. 그 장소에 지인들도 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왕대륙 측 역시 현지 매체를 통해 열애설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에도 일본 오사카의 한 테마파크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다. 두 사람은 중국 드라마 '귀취등장목야귀사'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엠넷 '프로듀스48' 녹화...6월 방송

워너원과 아이오아이를 탄생시킨 엠넷 '프로듀스101'의 세 번째 시즌인 '프로듀스48'이 11일 녹화를 시작했다. 한일 양국에서 데뷔할 걸그룹을 목표로 총 96명의 연습생들이 참여했다. 출연자가 101명이었던 '프로듀스101'과는 달리, 1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프로듀스48'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96명의 출연자가 모였다. 일본에서 활동중인 그룹 AKB48의 멤버를 포함해,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획사에서 트레이닝을 받아 온 탄탄한 기본기의 양국 연습생들이 이름을 올렸다. 11일 첫 대면한 이들은 앞으로 약 4개월의 여정을 거쳐 국민 프로듀서가 선택한 최초의 한일합작 걸그룹이 된다. 연습생들을 이끌어 갈 트레이너는 이홍기, 소우, 차타, 배운정 등이 맡는다. '프로듀스 48'은 6월부터 방송된다.

심형래 제작 '디워2'美 감독 연출

심형래가 제작하는 영화 '디워2'를 미국인 감독이 연출한다. 심형래는 11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워: 미스터리스 오브 더 드래건’ 연출을 미국인 감독에게 맡길 예정”이라며 “나는 총리 역할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극장 체인 회사를 비롯해 대형 투자사 4곳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펀딩, 배급, 캐릭터 사업까지 다 중국 투자 회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래는 “한때 중국 사드 이슈 때문에 투자가 미뤄지기도 했는데 이후 중국에서 먼저 ‘함께 하자’는 연락이 왔다.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워2'는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경쟁을 하는 1969년 냉전시대가 배경이다.

송은이·김숙, '해피홈' 광고모델로

개그우먼 송은이가 최근 김숙과 함께 유한양행의 살충제브랜드 '해피홈'의 광고모델로 발탁됐다. 11일 공개된 광고 사진에는 꽃무늬 셔츠를 입고 제품을 설명하는 송은이와 김숙의 모습이 담겨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송은이·김숙의 밝고 유쾌한 이미지를 더해 해피홈 브랜드를 더욱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송은이는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팟캐스트 '비밀보장TV'와 SBS 러브FM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를 비롯해 MBC '하하랜드?' '전지적 참견 시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예능 대세'로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 개그우먼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셀럽파이브로 활동하며 제작자·크리에이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두 엄마 이야기' 뉴욕TV 은상

지난해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랑-두 엄마 이야기'가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뉴욕TV페스티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두 엄마 이야기'는 세월호 실종자로 남아있었던 단원교 조은화, 하다운 양을 기다리는 두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딸을 향한 그리움과 애뜻함, 그리고 팽목항을 떠나지 못한 채 두 딸을 기다리며 쌓여 온 두 어머니의 우정을 담았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는 사이 두 아이의 유골이 엄마 곁으로 돌아가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두 엄마 이야기'에 은상을 수여한 '뉴욕TV페스티벌'은 1957년 설립된 시상식으로, 미국 방송매체의 종합 페스티벌 성격이 짙어 외국 프로그램의 수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